

삿포르 여름축제 - 스스키노 축제

8 월 첫 주말 3 일간, 저녁부터 밤에 걸쳐 ‘스스키노 축제’가 개최됩니다. 기간 중에는 보행자천국이 조성되며, 음식 포장마차가 늘어섭니다. 주요 이벤트는 오이란 행차, 북 연주, 퍼레이드나 춤 등이며, 마지막 날에는 각지의 신여행렬이 활기차게 열립니다.

도내 각지에서 모인 팀이 한자리에 만나 북소리에 둘러싸여 축제가 시작됩니다. 북소리에 맞춰 에도시대(1603-1868 년) 오이란으로 분장한 여성들이 호화찬란한 전통의상을 입고 ‘오이란 행차’를 시작합니다.

2 일째는 국내외 팀이 춤추며 차례로 거리를 행진합니다. 이 날은 호화로운 의상을 입은 춤추는 많은 사람들의 ‘요사코이’ 경연날입니다. 요사코이는 1950 년대에 도쿠시마현의 전통적인 아와오도리를 현대풍으로 시도한 것으로,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과 안무가 특징입니다.

또한 2 일째에는 새롭게 추가된 브라질의 카니발을 테마로 한 ‘삼바 카니발 퍼레이드’가 개최됩니다. 브라질의 카니발 분위기 그 자체의 댄서들이 스스키노 거리를 행진하고, 근처 오도리 비어가든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. 이 퍼레이드의 첫 해인 2019 년은 13 팀, 635 명이 참가했습니다.

마지막 날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신여를 짊어지고 삿포르 시내를 행진합니다. 7 개의 신여를 짊어지는 사람은 총 1,000 명 이상이며, 스스키노로 집결합니다. 가장 큰 것은 무게 1.5 톤, 짊어지는 사람은 100 명, 그 주위에는 도내 각지에서 모인 젊은 사람들이 교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.